

# 知覺에 대한 哲學的 分析

## - 직접적 귀속 이론의 관점에서 -

河 鍾 祐\*

### I

知覺(perception)에 대한 철학적인 물음은 지식의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先決되어야 하기에 哲學史上 매우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문제중의 하나였다. 특히 近世哲學史에 있어서 Locke로 대표되는 代表的 實在論(Representative Realism)을 위시하여 Berkeley의 觀念論(Idealism), Mill에서 부터 그 淵源을 찾을 수 있는 現象主義(Phenomenalism)는 지각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로서 그 이론들이 갖는 철학적인 意義는 甚大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심리학과 신경 생리학을 비롯한 認知科學의 발달로 인하여 지각에 관한 문제들 중 상당수가 경험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됨에 따라 지각에 대한 물음은 철학의 고유 영역에서 벗어난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지각이 물리적 사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어서 여전히 철학적인 물음들이 제시될 여지가 있기에 자연 과학적인 분석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기 어려움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각에 대한 철학적인 분석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최근에 인지 과학을 통해 밝혀진 여러 가지 실험 자료들을 포괄하는 한편 경험적으로는 밝힐 수 없는 부분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本稿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설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지식의 확실성을 보장하는 길을 확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지각은 궁극적으로는 대상에 관한 객관적 지칭(objective reference)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각에 대한 분석은 객관적 지칭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論者는 객관적 지칭의 문제에 대한 Chisholm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여 지각에 관해서

---

\* 人文大學 哲學科 助教授

는 그의 입장이 갖는 한계를 비판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길을 찾고자 한다.<sup>1)</sup> 이를 위해서 II절에서는 객관적 지칭에 대한 Chisholm의 입장을 그의 직접적 귀속 이론을 통해 보인 후 지각에 대한 그의 분석이 무엇이며 그것이 갖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살펴 보겠다. III절에서는 Chisholm의 지각 이론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인지 과학의 경험적 자료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지각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논자는 지각의 문제가 물리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문제로 귀착된다고 보고서 心理哲學에서 발전되어 온 이론적인 도구들을 사용하여 지각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각에 대한 설명이 포괄적인 설명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지각뿐만 아니라 환각이나 착각과 같은 逸脫的인 지각도 설명해 낼수 있어야 하므로 III절은 이 두 종류의 지각이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 지를 보여 주게 될 것이다. IV절은 논자가 III절에서 제시한 지각에 대한 분석이 갖는 이론적인 장점과 아울러 예상되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분석을 옹호할 수 있는 지를 보여줄 것이다.

## II

객관적 지칭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물음, 즉 외부 대상에 대한 우리의 데이 레이(de re) 지향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물음에 대한 해답으로서 종래에는 명제 이론이 제시되어왔다. 명제이론은, 어떤 주체 x가 대상 y를 어떠어떠하다고 판단할 때(즉, 지칭할 때)에는 y가 어떠어떠하다고 함의(imply)하는 명제 p가 있고, 이 p를 x가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그러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각하여 *The First Person*<sup>2)</sup>이 나오기 이전에는(예를 들어 *Person and Object*<sup>3)</sup>에서는) Chisholm도 데이 레이 믿음을 데이 디토(de dicto) 믿음으로 환원하려고 시도했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사람에 관해 데이 레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그 사람에 관해 무언가를 함의하는 명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Chisholm은 이러한 명제 이론이 두 가지 난점에 봉착하게 됨을 깨닫게 되었다.

첫째로는, 개체 확인 속성(identifying property) 또는 개체 고유 본질(haecceity) 개념과 관련된 난점이다. 예를 들어, 내가 나 자신에 관해 믿기를 지금 서있다고 믿고 있고, 철

1) 객관적 지칭의 문제에 대한 Chisholm의 입장에 대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그의 입장의 옹호를 위해서는 拙稿, “지칭 이론으로서의 직접적 귀속 이론”, 「哲學」, 29 (1988 봄): 209-24 참조.

2) Roderick M. Chisolm, *The First Person: An Essay on Reference and Intentionality*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1981).

3) Roderick M. Chisholm, *Person and Object* (La Salle: Open Court Publishing Co., 1976).

수는 그 자신에 관해 믿기를 그가 지금 서있다고 믿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때 비록 나와 철수가 모두 ‘나는 지금 서있다’라는 일인칭 문장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나 자신이 서있다고 믿을 때 내가 받아 들이는 명제와 철수가 그 자신이 서있다고 믿을 때 그가 받아 들이는 명제는 동일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철수가 서있다는 사태와 내가 서있다는 사태는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 두 명제가 구별될 수 있는가? 명제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를 위해 개체 확인 속성의 개념을 도입한다. 즉, ‘나는 지금 서있다’라는 문장으로 표현되는 명제를 철수가 사용할 경우에 그 명제는 ‘서있음’이라는 속성에 덧붙여서 철수를 다른 모든 개체로 부터 구별짓는, 철수에게만 고유한, 본질적인 속성을 함의하고 있고, 내가 사용할 경우에는 철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개체로부터 나를 구별짓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을 함의하기 때문에 두 명제는 구별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도대체 그러한 본질적인 속성이 무엇이나는 점이다. Chisholm은 이에 대해 나만이 가지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본질적인 속성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러한 속성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나의 본질적인 속성과 철수의 본질적인 속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명제 이론은 나 자신에 관한 나의 믿음과 철수가 그 자신에 관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약점을 안게 된다.

명제 이론이 갖는 또 다른 난점은 그 이론이 “ ‘ He, Himself ’ Locution ”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왜 명제 이론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자: 철수는 그의 친구들과 함께 있는 방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철수가 그 방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은 현명하다고 믿어도 바로 그 자신이 현명하다고 믿지는 않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 x는 키가 가장 큰 사람과 동일하고 x가 x에 의해 현명하다고 믿어지는 그러한 x가 적어도 하나는 있다”라는 명제는 참이면서, “키가 가장 큰 사람은 그 자신이 현명하다고 믿는다”라는 명제는 거짓인 경우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 두가지 서로 다른 경우를 표현하는 명제들을 구별하기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철수가 현명하다는 것을 함의하는 명제 (the proposition which implies Chul-Soo to be wise)와 철수 자신이 현명하다는 것을 함의하는 명제 (the proposition which implies Chul-Soo himself to be wise)는 구별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제 이론은 철수의 자기 다른 지칭 행위를 구별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명제 이론이 갖는 이러한 난점들로 인하여 Chisholm은 데이 레이 믿음을 데이 디토 믿음으로 환원하는 방식을 버리고 데이 세이 믿음으로 환원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객관적 지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명제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서 대상에 대한 인식 주체의 지향적 태도를 설명하려한 것이다. 이를 위해 Chisholm은 다음 두가지 사항을 전제한다. 첫

째로, 인식 주체는 자기 자신을 그의 지향적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사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인식 주체는 그러한 사유 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 귀속시키는 속성을 파악 내지는 마음 속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Chisholm은 전제한다.

이 두 전제에 근거해서 Chisholm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지향적 태도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속성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들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현명하다고 믿을 때 그는 자신에게 ‘현명함’이라는 속성을 직접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Chisholm은 분석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외에 다른 대상에 대해 갖는 지향적 태도는 어떻게 설명되는가? 이에 대해 Chisholm은 문제의 인식 주체가 특정한 속성을 대상에게 귀속시킴으로써 그것을 자신의 지향적 태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자기 맞은 편에서 있는 영수가 현명하다고 믿을 때 철수의 믿음은 곧 그가 자기 앞에서 있는 영수에게 현명함이라는 속성을 귀속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때의 귀속 행위는 철수가 자기 자신에게 특정한 속성을 귀속시키는 것과는 구별되는 행위다. 왜냐하면 그의 지향적 대상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개체이고 이 개체는 철수가 자신에 대해 갖는 “특권적 근접성(privileged access)”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Chisholm은 인식 주체가 자기 자신외의 다른 대상에게 속성을 귀속시킬 때 이 귀속 행위를 “간접적 귀속”이라고 부름으로써 직접적 귀속과 구별짓는다.

Chisholm은 이러한 간접적 귀속 개념을 직접적 귀속 개념에 의거해서 분석한다. 우선 Chisholm은 우리가 우리 자신외의 대상에게 속성을 귀속시킬 때에 우리와 그 대상사이에는 특정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앞에서 예로 든 철수의 경우 철수와 그 대상사이에는 ‘서로 맞은 편에 서있음’이라는 관계가 성립한다. 이와같이 인식 주체가 자신의 지향적 대상으로서 골라 뽑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관계를 Chisholm은 “확인 관계(identifying relation)”라고 부른다. Chisholm에 의하면, 철수가 자기 맞은 편에 서있는 영수에게 현명함이라는 속성을 간접적으로 귀속시킨다고 하는 것은 곧, ‘현명한 영수와 서로 맞은 편에 서 있다는 관계를 맺고 있음’이라는 속성을 철수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귀속시키는 것과 같다고 한다. 이것은 결국 철수가 영수에 대해 갖는 데이 레이 믿음을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데이 세이 믿음으로 환원하는 셈이 된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지칭 행위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칭 행위로 환원하는 것이 직접적 귀속 이론의 요지이며, 이 이론이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에 비유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이 이론이 앞에서 제시된 명제 이론의 난제들을 과연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로, 내가 나 자신에 관해 믿기를 나를 지금 서있다고 믿고, 철수가 자기 자신에 관해 믿기를 그가 지금 서있다고 믿을 때, 직접적 귀속 이론에 따르면 나는 나 자신에게 ‘서있음’이

라는 속성을 직접적으로 귀속시키고 있고, 철수는 그 속성을 철수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귀속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태여 개체 확인 속성 개념을 도입할 필요없이 나와 철수의 지칭 행위를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의 난점은 “ ‘ He, Himself’ Locution ”의 문제로서 다음 두 문장의 차이점을 명제 이론은 설명할 수 없다는 난점이었다.

(S) 키가 가장 큰 사람은 자기 자신이 현명하다고 믿는다.

(Q) x와 키가 가장 큰 사람은 동일하고, x는 x에 의해 현명하다고 믿어지는 그러한 x가 하나 있다.

S는 Q를 함의하지만 Q는 S를 함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제 이론은 이러한 관계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Chisholm은 직접적 귀속 개념과 간접적 귀속 개념을 사용하여 위의 두 문장들간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보여 준다.

(S') x와 키가 가장 큰 사람은 동일하고, 현명함이라는 속성은 x가 x에게 직접적으로 귀속시키는 속성이다.

(Q') x와 키가 가장 큰 사람은 동일하고, 현명함이라는 속성은 x가 x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시키는 속성이다.

예컨대, 키가 가장 큰 사람인 철수가 자기 자신이 키가 가장 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키가 가장 큰 사람은 현명하다고 믿을 때 그는 자기 자신에게 ‘현명함’이라는 속성을 직접적으로 귀속시킨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철수가 자기 자신이 키가 가장 큰 사람인 지는 모르면서 키가 가장 큰 사람은 현명하다고 믿을 때 그는 그 자신에게 ‘현명함’이라는 속성을 간접적으로 귀속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개관한 직접적 귀속 이론을 Chisholm은 고유 명사의 문제에 적용시킴으로써 고유명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잠시 살펴보자. ‘철수’라는 고유 명사를 담고 있는 문장인, (1) ‘철수는 서 있다’라는 문장과, 고유 명사를 담고 있지 않는 문장인, (2) ‘어떤 사람이 서 있다’라는 문장에 있어서 전자는 후자가 참이지 않는 한 참일 수 없는 반면에 전자가 거짓이더라도 후자는 참일 수 있다는 관계가 성립한다. 즉, 문장 (1)에 의해 표현되는 명제는 문장 (2)의 명제를 함의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종래에는 (1)에 의해 표현되는 명제는, (2)에 의해 표현되는 명제가 함의하지 않고 있는 속성을 함의하고 있으며, 그러한 속성은 ‘철수’라는 고유 명사에 기인한다고 여겨져 왔다. 그리고 이 속성은 ‘철수’라는 고유 명사의 의미를 구성하며, 철수의 본질적인 속성, 이를 테면 ‘철수와 동일함 (being identical with Chul-Soo)’과 같은 속성이 바로 그 고유

명사가 나타내는 의미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왔다. 여기서 Chisholm은 그러한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으므로 고유 명사에 대한 위와 같은 관점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하지만 문장 (1)이 문장 (2)가 나타내지 않는 무언가를 나타내고 있음에 틀림없는 한, 고유 명사의 의미와 기능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하는데 Chisholm은 이 작업을 그의 직접적 귀속 이론에 준거해서 수행한다.

우선 Chisholm은 고유 명사의 주된 기능은 지칭적 (referential)이지 속성적 (attributive) 이지는 않다고 본다. 즉, “철수가 서있다”라고 어떤 사람이 말할 때 話者는 철수에게 ‘서있음’이라는 속성을 귀속시킨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때 ‘철수’라는 고유 명사는 화자의 귀속 행위의 대상으로 청자의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 귀속되어지는 내용 (content)을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칭적 기능을 갖는 고유 명사는 어떠한 의미 (sense)를 갖는가? 종래에는 고유 명사를 이름으로 갖는 담지자의 개체 확인 속성이 바로 그 고유 명사의 의미라고 보아 왔으나 그러한 속성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한 이 관점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치증은 보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고유 명사는 지시적 (demonstrative) 의미와 부차적 (secondary)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고유 명사의 지시적 의미는 확인 관계 개념과 관련된 것으로서 어떤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자신에게로 귀속시키는 관계적 속성이지 그 이름의 담지자가 갖는 본질적 속성은 아니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철수가 서있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말을 하면서 A는 철수를 자기 옆 집에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B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철수를 자기에게 돈을 꾸 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철수’라는 고유 명사가 갖는 화자의 지시적 의미는 ‘내 옆 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A에 의해 표현되고, A는 자기와 그러한 관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철수에게 ‘서있음’이라는 속성을 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 A가 ‘내 옆 집에 사는 사람은 서 있다’라고 B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A와 B사이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B의 경우에 있어서 ‘철수’의 지시적 의미는 ‘나에게 돈을 꾸 준 사람’일 지라도 B역시 자기와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철수에게 A와 함께 ‘서있음’이라는 속성을 귀속시키고 있으므로 A와 B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고유 명사의 지시적 의미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동일한 사람의 경우에도 그 사람에 대한 고유 명사의 지시적 의미는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고유 명사의 부차적 의미란, 화자가 그 이름을 사용해서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사물을 지칭하기 위해 그 고유 명사를 사용한다는 화자의 속성이라고 한다. 앞의 예에서 ‘철수’의 부차적 의미란 바로 A가 통상적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철수’라는 이름을 사

용하고 있다는 A의 속성이라는 것이다. 고유 명사의 부차적 의미라는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고유 명사를 사용할 때 고유 명사가 가리키는 대상뿐만 아니라 고유 명사 자체에 관해서도 무언가를 말하기 때문이다. 즉, A가 ‘철수가 서있다’라고 말할 때 A가 철수에 관해서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수’에 관해서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A가 이상한 방식으로 ‘철수’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며, 그 때의 고유 명사 ‘철수’는 그러한 속성을 하나의 의미로 가지고 있다고 Chisholm은 본다.

Chisholm은 Kripke가 제시한 믿음에 관한 퍼즐을 고유 명사의 부차적 의미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해결한다.<sup>4)</sup> 예를 들어 철수가 나성에 관해 소개된 자료들과 그 곳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나성은 아름답다”라고 말했다고 하자. 그 후에 철수는 영어를 배우게 되었고 L.A. 를 방문했는데 그 도시의 가장 저저분한 곳을 가 보고서는 “Los Angeles is not pretty”라고 말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철수가 ‘나성’이라는 한국 이름이 가리키는 도시와 ‘Los Angeles’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도시가 같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한국에서는 “나성은 아름답다”고 말하면서 미국에서는 “Los Angeles is not pretty”라고 말할 경우 우리는 과연 그가 나성은 아름답다고 믿고 있다고 봐야 하는지 결정하기가 곤란하게 된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행한 철수의 발언으로부터

(3) 철수는 나성이 아름답다고 믿는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반면에 미국에서의 그의 말에 따르면

(4) 철수는 나성이 아름답지 않다고 믿는다

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즉 철수는 두 가지의 모순된 명제들을 믿고 있는 셈이 되며, 명제 이론은 철수가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철수가 한국과 미국에서 그런 발언을 할 때 그는 전혀 논리적인 모순을 느끼지 않고 그 말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더 분명해 진다. 한국에서 철수가 다음과 같이 믿고 있다고 가정하자: “만일 동경이 아름답다면, 나성은 아름답다.” 철수가 L.A. 에 가서 “Los Angeles is not pretty”라고 말했다면 그는 나성이 아름답지 않다고 믿는 셈이 된다. 그러면 (a) “만일 동경이 아름답다면, 나성은 아름답다”와 (b) “나성은 아름답지 않다”라는 두 전제로부터 modus tollens에 의해 (c) “동경은 아름답지 않다”는 결론을 그가 추론해 내야 한다. 그러나 철수가 아무리 논리학에 통달하고 있더라도 ‘나성’과 ‘Los Angeles’가 서로 다른 도시들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 위와 같은 논리적인 추론을 그에게서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첫번째 사례의 경우에도 철수가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

4) Saul A. Kripke, “A Puzzle about Belief,” in *Meaning and Use*, ed. A. Margalit (Dordrecht: D. Reidel Publishing Co., 1979), pp. 239-283.

럽다. 하지만 나성이 아름답다고 철수가 믿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긍정적으로도 또는 부정적으로도 대답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Chisholm의 분석에 의하면, 철수가 한국에서 “나성은 아름답다”고 말할 때와 미국에서 “Los Angeles is not pretty”라고 말할 때 그는 두 종류의 귀속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첫번째 경우에 있어서 철수는 그가 ‘나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통상적으로 지시하는 대상에 대해 ‘아름다움’이라는 속성을 귀속시키고 있는 반면에 두번째 경우에 있어서는 그가 ‘Los Angeles’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통상적으로 지시하는 대상에 대해 ‘아름답지 않음’이라는 속성을 귀속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문장 (3)은 첫번째 종류의 귀속 행위에 의해 참이 되고, (4)는 두번째의 귀속 행위에 의해 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Kripke가 제시한 퍼즐은 해결이 된다고 Chisholm은 주장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Chisholm의 직접적 귀속 이론은 지칭 문제에 있어서 명제 이론이 안고 있는 난점들을 해결하는 한편 개체와 속성, 관계, 사태라는 개념들 외에는 다른 개념들(이를테면, 개체 확인 속성, 개체 고유 본질, 명제, 가능 세계, 고정 지시어 등)을 도입하지 않고서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 나갔다는 점에서 존재론적으로도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직접적 귀속 이론은 존재론적 검약성의 원칙을 최대한으로 준수한 지칭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직접적 귀속 이론의 견지에서 치즘은 知覺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x$ 는  $y$ 가 F하다고 지각한다 =Df.  $y$ 는 F하다:  $x$ 는  $y$ 가 F하다고 知覺에 의해 받아들인다: 그리고  $y$ 가 F한 것은  $x$ 에게 명증적(evident)이다<sup>5)</sup>

위의 定義項에 있는 ‘지각에 의해 받아들임(perceptually taking)’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x$ 는  $y$ 가 F하다고 지각에 의해 받아들인다=Df.  $y$ 가  $x$ 에게 나타나는(appearing) 방식이 있다; 그리고  $x$ 는  $y$ 가 그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고서  $y$ 에 대해 F라는 속성을 간접적으로 귀속시킨다<sup>6)</sup>

이 정의들에서 나타나듯이 치즘은 지각을 정의함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대상이 인식 주체에게 나타남(appearing)’이라든지 ‘인식 주체가 어떠한 느낌(being appeared to)’이라는 요소를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삼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대상에 대한 언명을 副詞化시킴으로써 지각 상태를 記述하려는 ‘副詞化主義(adverbialism)’에 근거해 있다. 부사화주의

5) Chisholm, *The First Person*, p. 103.

6) Ibid., p. 96.



는 현상(appearance)에 관한 언명들을 인식 주체가 지각하는 방식에 관한 언명으로 환원시킴으로써 지각 대상의 존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피하는 전략을 취하는 입장이다. 예컨대 ‘철수가 붉고 둥근 대상에 대한 환각을 가지고 있다 (Chul-Soo hallucinates a red circular object)’라는 언명은 ‘철수가 붉게 그리고 둥글게 지각한다 (Chul-Soo senses redly and circularly)’라는 언명과 同値라고 본다. 이렇게 되면 철수의 환각의 대상이 무엇이며, 그것이 존재하느냐의 문제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부사화주의는 전통적인 지각 이론이 갖는 난점들을 해결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에 못지 않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비판되어 왔다.<sup>7)</sup> 이러한 비판에 덧붙여 논자는 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부사화주의에 대해 제기하고자 한다: 부사화주의는 과연 지각을 실질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인가? 부사화주의자 중의 한 사람인 Sellars는 “Jones senses (a red object)ly”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Jones senses a red object”를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그는 前者의 문장이 나타내는 상태, 즉 ‘Jones’ sensing (a red object)ly’가 어떠한 상태인 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것은 곧 지각에 대한 철학적인 물음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판은 지각에 대한 Chisholm의 분석에도 해당된다. (a) x는 y가 F하다고 지각한다(x perceives y to be F)와 (b) x는 y하게 그리고 F하게 느낀다.(x is appeared to y-ly and F-ly)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Chisholm은 (a)를 (b)의 견지에서 분석했는데 (a)와 (b)가 서로 어떻게 다른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만일 (a)와 (b)가 별 차이가 없다면 지각에 대한 그의 분석은 순환적이게 되어 지각에 대한 실질적인 설명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being appeared to”가 어떠한 상태를 가리키는 지를 분명히 하지 않는 한 Chisholm의 분석은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Chisholm은 정상적인 지각에 대한 분석이 일탈적인 지각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지를 밝히지 않았고, 적용될 수 없다면 일탈적인 지각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Chisholm의 지각 이론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데 다

7) 특히 “다수 속성의 문제 (Many Property Problem)”와 “동일성 문제 (Identity Problem)”가 제기되었는데 이에 관한 논의는 다음 논문들을 참조하라. Frank Jackson, “On the Adverbial Analysis of Visual Experiences,” *Metaphilosophy* 6 (1975): 127-135; Michael Tye, “The Adverbial Theory: A Defence of Sellars against Jacson,” *Metaphilosophy* 6 (1975):136-143; Wilfrid Sellars, “The Adverbial Theory of the Objects of Sensation,” *Metaphilosophy* 6 (1975):144-160; Thomas Vinci, “Sallars and the Adverbial Theory of Sensation,”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11 (1981): 199-217; Albert Casullo, “Adverbial Theories of Sensing and the Many-Property Problem,” *Philosophical Studies* 44 (1983): 143-160; Michael Tye, “The Adverbial Approach to Visual Experience,” *Philosophical Review* 93 (1984):195-225; Albert Casullo, “A Defense of Sense-Data,”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48 (1987):45-61.

음 절에서 논자는 Chisholm이 기본적 개념으로 상정한 “being appeared to” 개념을 분석하여 지각에 대한 실질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한편 부사화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도 직접적 귀속 이론의 견지에서 지각 개념이 어떻게 분석되는 지를 보이려고 한다.

### Ⅲ

우리가 어떤 것을 지각할 때 지각 작용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지각하는 인식주체와 지각의 대상,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인식 주체의 ‘정신적 내용(mental content)’이 바로 그 세 요소들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 철수가 눈뭉치를 보고 있을 때 그의 지각 행위는 철수 자신과 눈뭉치, 그리고 눈뭉치에 대한 그의 정신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때의 정신적인 내용은, 보다 세분해서 말하자면, 지각 내용(perceptual content)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러면 지각 내용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에 대해 或者는 소위 지각 내용은 대상에 대한 일종의 믿음(belief)이나 판단(judgment)이라고 추정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각 내용은 판단이나 믿음과 같은 고도의 정신 작용의 결과일 필요는 없고, 우리의 지각 작용에서 나타나는 원초적인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갓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촉감을 느낄 경우 그가 어머니의 가슴에 대해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믿는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머니의 가슴과 가슴의 형태를 띤 쇠로 만든 모조품에 대한 그의 반응이 다르다고 한다면 갓난 아이는 뭔가를 인지하고 있음에 틀림없으며, 이때 그가 가지고 있는 지각 내용은 판단이나 믿음보다는 더 원초적인 종류의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철수가 눈뭉치를 보는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자. 이때 그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을까? 생리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다: 철수가 눈뭉치를 볼 때 눈뭉치에서 반사된 빛이 그의 눈에 들어가고 이것은 그의 망막을 때린다. 이때 밝음, 어두움, 색깔 등의 물리적인 패턴은 전기 화학적인 자극으로 바뀌고 그의 視神經을 통해 뇌로 전달된다. 그의 두 눈동자로부터 뇌에 이르는 시신경은 서로 교차해서 각각의 눈을 통해 들어 온 정보를 전달한다.<sup>8)</sup>

철수의 뇌에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일련의 신경 생리학적 사건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철수의 입장에서는, 어떤 흰 물질로 이루어진 둥근 물체를 보고 있으며, 그 물질은 ‘눈’이

8) 이 설명은 시각 경험에 대한 Kosslyn의 생리학적 설명에 근거해 있다. Stephen M. Kosslyn, *Ghosts in the Mind's Machine* (New York: W.W. Norton & Co., 1983), p. 178.

라고 부르도록 배운 것이라고 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철수의 뇌 속에 있는것은 눈뭉치가 아니라 눈뭉치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기 화학적 자극이라고 해야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눈뭉치에 대한 철수의 지각 내용은 외부 자극에 의해 생긴 그의 신경생리학적 과정으로 부터 나온 정신적 상태(mental state)라고 규정될 수 있다. 지각 내용을 이와 같이 규정하게 되면 지각이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작업은 전기 화학적 자극과 지각 내용과의 관계를 어떻게 규명하느냐는 문제로 귀착된다.

대상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지각 경험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로서 흔히 인과 관계를 상정해 왔다. 철수가 눈뭉치를 볼 때 눈뭉치로부터 나온 빛이 철수의 망막을 때리고 이것은 적절한 전기 화학적 자극을 일으켜서 신경 체계를 타고 전달되어 종국에는 철수의 지각 내용을 발생 시키므로 눈뭉치와 철수의 지각 경험은 인과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지각에 대한 인과적 설명이 과연 타당한 지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 눈뭉치와 그것에 대한 철수의 지각 내용의 속성을 비교해 보자. 눈뭉치는 ‘흰 색’, ‘둥글’, ‘차가움’ 등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눈뭉치에 대한 지각 내용은 어떠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눈뭉치와 마찬가지로 철수의 지각 내용도 희고, 둥글고, 차다고 말할 수 있을까? 눈뭉치가 희다라고 말할 때와 같은 의미에서 지각 내용도 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어느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눈뭉치와 마찬가지로 그것에 관한 지각내용도 물리적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광학적인 법칙을 눈뭉치에 적용시켜서 그것의 흰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반면에 철수의 지각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눈뭉치의 속성과 철수의 지각 내용의 속성은 성격상 서로 같은 범주에 속하여 있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각 내용의 속성들이 물리적 대상의 속성들에 대응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즉, 눈뭉치에 대한 철수의 지각 내용이 흰 색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흰 색임’이라는 술어로 記述되는 속성에 대응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다. 이와 같이 물리적인 대상의 속성과 정신적 상태인 지각 내용의 속성이 질적으로 다름을 나타내기 위해 전자의 경우에는 속성을 나타내는 용어에 ‘p’ 자를 붙이고, 후자는 ‘m’ 자를 붙여서 표기하도록 하자. 예컨대 ‘흰 색’이라는 속성을 ‘W’로 나타낸다면, 눈뭉치의 속성으로서의 흰 색

9) 이러한 전제는 “심상에 대한 그림 이론(Pictorial Theory of Mental Images)”에 근거해 있으며, 이 이론에 대한 논의는 다음 논문들을 참조하라. Ned Block, “The Photographic Fallacy in the Debate about Mental Imagery,” *Nous* 17 (1983): 651-61; idem, “Mental Pictures and Cognitive Science,” *Philosophical Review* 92 (1983): 499-541; Stephen M. Kosslyn, *Ghosts in the Mind's Machine*; Stephen M. Kosslyn and James R. Pomerantz, “Imagery, Propositions, and the Form of Internal Representations,” in *Readings in Philosophy of Psychology*, vol. 2, ed. N. Block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81), pp. 150-169. Stephen M. Kosslyn, et al., “On the Demystification of Mental Imagery,” in *Imagery*, ed. N. Block (Cambridge: The MIT Press, 1981), pp. 131-150; Roger N. Shepard, “The Mental Image,” *American Psychologist* 33 (1978): 125-137.

은 'W<sub>P</sub>'로, 이에 대응하는 지각내용의 속성은 'W<sub>m</sub>'으로 표기하겠다. 눈뭉치의 속성의 집합을 'P'로, 눈뭉치에 대한 철수의 지각 내용의 속성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M'으로 나타내고, '등굣'이라는 속성은 'R'로, '차가움'이라는 속성은 'C'로 표기할 경우, 두 속성의 집합을 아래와 같이 기호화할 수 있다.<sup>10)</sup>

$$P = \{ W_P, R_P, C_P, \dots \}$$

$$M = \{ W_m, R_m, C_m, \dots \}$$

대상에 대한 우리의 지각 행위를 인과성에 의해 설명하려는 시도는 바로 P의 원소와 그에 대응하는 M의 원소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입장을 취한다. 인과성 개념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P와 M의 관계에 대한 성격 규정도 달라지겠지만 여기서는 필요 충분 조건의 견지에서 인과성 개념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면 P의 원소가 그에 대응하는 M의 원소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 검토해 보자.

P의 원소가 그에 대응하는 M의 원소의 필요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눈뭉치가 P의 원소를 갖지 않는 한 철수의 지각 내용이 M의 원소를 갖지 말아야 한다. W<sub>P</sub>와 W<sub>m</sub>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눈이 희지 않는 가능 세계를 우리는 상정할 수 있는데 이 세계에서 철수가 눈뭉치를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눈뭉치를 비추고 있는 조명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눈뭉치가 희게 보일 경우, 눈뭉치의 속성은 -W<sub>P</sub>인 반면에 철수의 지각 내용은 W<sub>m</sub>을 갖게 된다. 따라서 W<sub>P</sub>는 W<sub>m</sub>의 필요 조건이 될 수 없다. W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속성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P의 원소가 M의 원소의 필요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예증해 보일 수 있다.

P의 원소가 M의 원소의 충분 조건이라고 함은, 눈뭉치가 집합 P에 속하는 원소를 갖기만 하면, 지각 내용은 그 원소에 대응하는 M에 속하는 원소를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눈뭉치의 직경이 10 cm라고 할 때 이 속성을 D<sub>P</sub>라고 부르고 그에 대응하는 M의 속성을 D<sub>m</sub>이라고 부른다. 만일 눈뭉치가 속성 D<sub>P</sub>를 갖지만 철수의 지각 내용이 D<sub>m</sub>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D<sub>P</sub>는 D<sub>m</sub>의 충분 조건이 못된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속성 D<sub>P</sub>를 가진 눈뭉치가 철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의 지각 내용은 -D<sub>m</sub>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는 P의 원소들이 그에 대응하는 M의 원소의 충분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P가 M에 대해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될 수 없는 한, P와 M의 관계를 인

10) 대상의 물리적 속성의 집합과 지각 내용의 정신적 속성의 집합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 기관을 통해 지각되는 속성들에 국한시켜야 한다. 일정한 온도에서 녹는다는 속성의 경우 그에 대응하는 지각 내용의 속성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논의는 지각에 관련된 것이므로 이러한 제한은 이론상의 결함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 대상의 속성에 대응하는 정신적 내용의 속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두 종류의 속성들이 구분되어야 함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과 관계로써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P와 M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으로서 Sosa의 “수반적 인과성 (supervenient causation)” 개념을 고려하자는 제안이 있을 수 있다. Sosa는 수반적 인과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건  $x$ 가 속성 P를 갖게 되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바로 그때에만 사건  $y$ 는 속성 Q를 갖게 된다(즉,  $\langle P, x \rangle$ 는  $\langle Q, y \rangle$ 의 원인이 된다):  $x$ 의 속성들을 갖는 하나의 사건이  $y$ 의 속성들을 갖는 또 다른 사건에 대해 R의 관계를 맺기만 하면 언제든지 후자의 사건이 Q를 갖게 되는 것이 법칙적으로 필연적인(nomologically necessary) 그러한  $x$ 의 속성과  $y$ 의 속성, 그리고  $x$ 와  $y$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 R이 있다<sup>11)</sup>

예를 들어서 火傷이 화상이 되는 사건과 고통이 고통이 되는 사건사이의 인과관계는 그 화상의 속성과 그 고통의 속성, 그리고 그 두 사건간의 관계에 수반하되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위의 두 사건들을 한 짝으로 묶을 때 모든 면에서 그 짝과 같은 사건들의 짝이 또 하나 있을 때, 그 짝의 한 원소가 화상이 되는 것이 다른 원소가 고통이 되는 것을 惹起한다. 따라서 ‘화상임 (being a burn)’이라는 물리적 속성과 ‘고통임 (being a pain)’이라는 정신적 속성간의 관계는 위에서 정의된 수반적 인과 관계로 규정된다고 Sosa는 보고 있다.

수반적 인과 관계가 인식 대상과 지각 내용사이에 적용될 수 있는 지를 판정하기 위해 ‘화상이 화상이 됨’이라는 사건을 ‘눈몽치가 눈몽치가 됨’이라는 사건으로 대체하고, ‘고통이 고통이 됨’이라는 사건을 ‘눈몽치에 대한 지각 내용이 눈몽치에 대한 지각 내용이 됨’이라는 사건으로 대체해 보자. 이 때 눈몽치를  $s$ , 지각 내용을  $c$ 로 표기하면 전자의 사건은  $\langle W_p, s \rangle$ 로, 후자의 사건은  $\langle W_m, c \rangle$ 로 표기될 수 있다. 그렇다면  $\langle W_p, s \rangle$ 와  $\langle W_m, c \rangle$ 라는 두 짝의 사건들은 수반적 인과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즉,  $s$ 의 속성을 갖는 사건이  $c$ 의 속성을 갖는 다른 사건과 관련을 맺기만 하면 언제든지  $c$ 의 속성을 갖는 그 사건은  $W_p$ 를 갖게 되는 것이 법칙적으로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비록 두 사건들 중 한 사건이  $s$ 의 속성들, 이를테면  $W_p$ 와  $R_p$ 를 가지고, 그 사건이  $R_m$ 의 속성을 갖는 또 다른 사건과 관련을 맺더라도 이 후자의 사건은  $-W_m$ 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철수가 붉은 조명하에서 눈몽치를 보고 있을 때에는  $(W_p \& R_p)$ 의 속성을 갖는 눈몽치에 대한 철수의 지각 내용이 되는 또 다른 사건은  $-W_m$ 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눈몽치와 철수의 지각 내용사이에 수반적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11) Ernest Sosa, “Mind-Body Interaction and Supervenient Causation,” in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vol. IX, ed. Peter A. French, et al.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1979), p. 279.

그렇다면 눈몽치와 그것에 대한 철수의 지각 내용사이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로 규정지어야 하는가? 이들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성립함에는 틀림없는데 인과 관계도 아니고, 수반적 인과 관계도 아님을 앞에서 살펴 보았다. 여기서 다시금 앞 절에서 비판받은 副詞化主義가 고개를 들지도 모르겠다. 눈몽치와 철수의 지각 내용사이에 성립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으면서도 그들사이의 관계를 부인할 수도 없으므로 부사화주의의 환원이 그러한 곤경으로 부터 벗어나는 최상의 방책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사화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문제의 관계를 규명하는 길이 있는 이상 이 결론은 너무 성급하다고 하겠다.

앞에서 소개했던 철수의 視覺 메카니즘에 대한 생리학적 설명에 일단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우리는 눈몽치가 일정한 속성들을 갖는 사건과 철수가 지각 내용을 갖는 사건 사이에 일종의 매개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인식 대상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기 화학적 자극이다. 비록 우리가 전기 화학적 자극이 철수의 지각 내용을 어떻게 발생시키는지를 신경 생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더라도 대상과 그 두 종류의 개체들—전기 화학적 자극과 지각 내용—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된다.

우선 눈몽치와 철수의 두뇌 속에서 발생하는 전기 화학적 자극사이에 성립하는 관계가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를 살펴보자.<sup>12)</sup> 눈몽치의 속성들 중의 하나인  $W_p$ 의 경우에 있어서, 철수의 두뇌에서 일어나는 전기 화학적 자극들에 담겨 있다고 추정되는 정보들 중에는  $W_p$ 에 대응되는 일정한 정보가 있을 것이다. 이 정보를  $W_i$ 라고 부르자.  $R_p$ 의 경우에는  $W_i$ 와 같은 방식으로  $R_i$ 를 상정할 수 있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langle W_p, W_i \rangle$ 라든지  $\langle R_p, R_i \rangle$ 의 짝에 들어 있는 원소들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짓는 것이 된다.

이를 위해  $\langle W_p, W_i \rangle$ 의 짝을 표본으로 삼아 고찰해 보자.  $W_p$ 가 발생하는 사건이  $W_i$ 의 발생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부정적으로 답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조명을 교묘히 조종함으로써  $W_p$ 가  $-W_i$ 를 발생하게 하거나  $-W_p$ 가  $W_i$ 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langle W_p, W_i \rangle$ 의 경우와,  $\langle -W_p, W_i \rangle$ 와  $\langle W_p, -W_i \rangle$ 의 경우를 구별짓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전자의 경우를 정상적인 지각이라고 부르고, 후자의 경우들을 비정상적인, 또는 逸脫的인 지각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일탈적인 지각의 주요 특징으로서 전기 화학적 자극이 외부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대상에 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점을 들 수 있겠다.

12) 이에 앞서 전기 화학적 자극의 구체적인 성격을 먼저 밝혀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작업은 신경 생리학과 여타의 인지 과학에 속한 것이므로 여기서 그 문제를 논할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전기 화학적 자극이 외부 대상에 관한 일정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과학자들의 가설에 근거해서 문제의 관계를 규정지으면 지각에 대한 철학적인 분석 작업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정확한(correct) 정보와 부정확한(incorrect) 정보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어떠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전기 화학적 자극이 흰 눈뭉치에 관해서 정확한 정보를 준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기서 논자는 Dretske의 정보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그는 'S가 F함(S's being F)'에 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

- (A) 문제의 정보를 전달하는 신호(signal)는 'S가 F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큼의 S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
- (B) S는 F하다.
- (C) 그 신호가 S에 관해 전달하는 정보의 양은 'S가 F함'에 의해 발생하는 양과 같거나 그것을 포함해야 한다. (이 때 'S가 G함'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의 양과 같아서는 안된다.)<sup>13)</sup>

이 조건들을 눈뭉치에 대한 철수의 지각에 대해 적용시켜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A) 철수의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 화학적 자극이 눈뭉치가 희다는 사태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의 눈뭉치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B) 문제의 눈뭉치는 희고, (C) 그 자극이 눈뭉치에 관해 전달하는 정보의 양은 눈뭉치가 희다는 사태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의 양을 포함할 때에 철수의 두 뇌에 있는 전기 화학적 자극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는 정확한 정보가 된다. 따라서 철수가 눈뭉치를 붉은 조명하에서 보면서 그것이 붉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 관해 전기 화학적 자극이 전달하는 정보가 위의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부정확한 정보로 간주되어진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해서 지각에 있어서의 정확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CI) 인식 주체의 두뇌에 있는 전기 화학적 자극은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킬 때 바로 그때에만 대상 O가 F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
  - (i) 그 자극은 O가 F함으로써 발생될 만큼의 O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 그리고
  - (ii) O는 F하다; 그리고
  - (iii) 그 자극이 O에 관해 전달하는 정보의 양은 O가 F함으로써 발생하는 정보의 양과 같거나 그 양을 포함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지각과 일탈적인 지각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전기 화학적 자극이 '정확한 정보 전달자(correct information carrier, CIC로 약해서 부르겠다)'로서의 역할을 하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부정확한 정보 전달자(incorrect information carrier, IIC로 약해서 부르겠다)'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

13) Fred I. Dretske, *Knowledge and the Flow of Information* (Cambridge: The MIT Press, 1981), pp. 63-4.

고 CIC의 경우에는 대상과 정보 전달자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하는 반면에 IIC의 경우에는 그러한 인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지각의 한 조건으로서, 대상과 그것에 관한 정보 전달자(즉, 인식 주체의 뇌에 있는 전기 화학적 자극)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은 곧 그들사이에 인과 관계가 단절될 경우 인식 주체는 정상적인 의미에 있어서 대상을 지각한다고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가 규명해야 할 문제는 CIC와 그에 대응하는 지각 내용사이에 성립하는 관계가 무엇이나는 문제이다. 화상이라는 물리적 사건과 고통이라는 정신적 사건은 질적으로 서로 다른 사건들이고 이 두 사건사이에 성립하는 생리학적 메카니즘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상 그들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CIC와 지각 내용간의 관계를 인과 관계로 처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물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편으로서 최근에 제시된 김 재권 교수의 “**隨伴(supervenience)**” 개념을 도입할 경우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김 재권 교수의 定義에 따르면, 속성들의 집합 A와 속성들의 다른 집합 B는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킬 때 바로 그 때에만 A는 B에 약하게 수반한다: A에 속한 원소 중 어떠한 원소 F에 대해서, 어떤 대상 x가 F를 갖게 되면 x가 G를 갖게 되는 그러한 속성 G가 B에 속해 있는 것이 필연적이고, 어떤 대상 y가 G를 가지면, y는 F를 갖게 된다.<sup>14)</sup> A를 눈뭉치에 대한 철수의 지각 내용의 속성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라 하고, B를 그의 두뇌에 있는 CIC의 속성들의 집합이라고 하자. 그러면 A는 B에 약하게 수반한다고 할 수 있는가? 철수가  $W_m$ 이라는 속성을 가지게 되면 그의 두뇌에는  $W_p$ 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CIC의 속성이 있게 되는 것이 필연적이고, 철수와 동일한 지각 상황하에 있는 영수가 그의 두뇌속에 후자의 속성을 가지면 그는 전자의 속성을 갖게 되므로 A와 B사이에는 약한 수반 관계가 성립함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강한 수반(strong supervenience)**” 관계는 어떠한가? 강한 수반 개념을 김 재권 교수는 다음과 같이 定義한다.

대상 X와 A에 속한 속성 F에 대해서, X가 F를 가지면, x가 G를 갖는 그러한 속성 G가 B에 들어 있는 것이 필연적이고, y가 G를 가지면 y가 F를 갖는 것이 필연적일 경우에만 A는 B에 강하게 수반한다.<sup>15)</sup>

철수가 속성  $W_m$ 을 가지면, 그의 뇌에서  $W_p$ 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CIC의 속성이 존재

14) Jaegwon Kim, “Concepts of Supervenience,”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45 (1984). 163.

15) *Ibid.*, p. 165.



하는 것이 필연적이고, 영수가 그의 두뇌속에 후자의 속성(즉, CIC의 속성)을 가지면, 그가 전자의 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 물음은 다음과 같이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다: CIC에 의해 전달되는  $W_p$ 에 관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W_m$ 이라는 지각 내용을 가질 수 있는가? 즉 그의 CIC가 대상이 희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반면에 그는 대상이 희지 않다는 지각 내용을 갖는 것이 가능한가? 이와 같은 경우는 형이상학적으로 가능(metaphysically possible)하더라도 법칙적으로 가능(nomologically possible)하지는 않다. 그런데 김 재권 교수는 강한 수반에 있어서의 필연성은 심리-물리적 수반(psycho-physical supervenience)의 경우 법칙적 필연성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인정하므로 우리가 문제의 필연성을 법칙적 필연성으로 해석할 경우 A와 B는 강한 수반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식 주체의 지각 내용은 정확한 정보 전달자로서의 전기 화학적 자극에 강하게 수반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눈물치에 대한 철수의 지각에 관해 이상의 논의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그의 지각을 분석할 수 있겠다.

철수는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킬 때 바로 그 때에만 그의 앞에 있는 눈물치가 희고 등글다고 지각한다: (i) 그의 두뇌에서 대상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기 화학적 자극과 눈물치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ii) 철수는 전기 화학적 자극에 강하게 수반하는 눈물치에 관한 지각 내용을 갖는다.

철수의 지각에 대한 위의 분석에 대해서 그 두 조건만으로는 그의 지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異義가 제기될 수 있다. 지각은 판단이나 믿음을 포함해야 하는데 위의 분석은 그러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sup>16)</sup> 지각이 믿음이나 판단의 상태를 포함하는 지의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철학적인 문제인데 Chisholm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내가 어떤 사물을 지각하고 있다면, 일정한 방식으로 나에게 느껴지는 어떤 것이 있다고 나는 판단한다.”<sup>17)</sup> 그러나 지각이 판단이나 믿음을 반드시 포함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경우들이 몇 가지 있다:

(1) 어떤 대상  $0$ 가 인식 주체  $S$ 에게 보라색으로 보이더라도  $0$ 가 보라색이 아님을  $S$ 가 이미

16) ‘판단’과 ‘믿음’을 엄격히 구별하여 서로 다른 심리 상태로 보려는 입장이 있지만 논자는 이 둘을 실질적으로 구분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믿음의 상태가 아닌 판단이라든지, 판단이 없는 믿음의 상태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각이 믿음이나 판단의 상태를 포함하는 지에 관한 논의로는, D.M. Armstrong, *A Materialist Theory of the Min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8); Fred I. Dretske, *Seeing and Knowing*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1969); John Heil, “Seeing Is Believing,”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19 (1982):229-239; George S. Pappas, “Seeing-e and Seeing-n,” *Mind* 85 (1976): 171-188; George Pitcher, *A Theory of Perception*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1) 참조.

17) Roderick M. Chisholm, *The First Person*, p. 96.

알고 있다면 S는 O가 보라색이라고 판단하거나 믿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형광등 밑에서 자신의 붉은색 바지를 보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 바지가 보라색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보라색이라고 판단하거나 믿지는 않을 것이다; (2) 우리는 사물들을 무심코 볼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때에는 그 대상들에 관해 아무 믿음도 갖지 않는다. 예컨대 뭔가를 느끼기는 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채지 못했을 경우 “방금 전에 그것은 무엇이었지?”라고 自問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바로 무언가를 지각하면서도 지각하는 순간에 그것에 관한 판단이나 믿음을 갖지 않는 경우인 것이다. Sosa는 우리의 촉각적인 경험과 관련된 경우를 통하여 이러한 점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어떤 피아노 연주자가 매우 어렵고 빠른 악절을 연주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방금 전에 그는 손가락을 재빨리 놀리는 동시에 건반을 두드리는 촉감에 집중했을텐데 실제로 복잡한 악보를 연주함에 있어서 그는 자신이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지 전혀 알아 채지 못할 수도 있다.<sup>18)</sup>

첫번째의 반례에 대해서 Chisholm의 입장에서는 S의 지각 양식을 두 종류로 세분함으로써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즉 S가 日光下에서의 색깔과 형광등 아래에서의 색깔이 다르다고 믿는 한, 일광하에서의 대상에 대한 지각과 형광등 아래에서의 지각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이다. O가 붉다고 나는 믿는다고 S가 말하면서 동시에 O가 붉지 않다고 나는 믿는다고 S가 말하는 것은 모순되지만, 어떤 조건하에서 O가 붉다고 믿는 S의 믿음과 다른 조건하에서 O가 붉지 않다고 믿는 S의 믿음은 양립가능하다. 따라서 S가 그의 바지가 형광등 아래에서는 보라색으로 보인다고 믿는 동시에 日光下에서는 그 바지가 붉게 보인다고 믿음에 있어서 문제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따라서 첫번째 반례는 비판력을 상실하게 된다. 두번째의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Heil은 “무의식적 믿음(unconscious belief)”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알아채지 못하면서 보는 경우(seeing-without-noticing)”와 “단순히 못보는 경우(simple failure to see)”를 구분한다.<sup>19)</sup> 알아채지 못하면서 보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대상에 관해 무의식적으로 믿음을 갖게 되므로 지각은 언제나 믿음을 포함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에 관해 믿을 때 무의식적으로 믿을 수 있는 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설령 우리가 무의식적인 믿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믿음이 어떠한 認知 메카니즘에 의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Heil의 설명은 그리 설득력있는 설명이 못되고 있다. 무의식적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그는 우리가 옆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잡한 거리를 운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 제안한다.

18) Ernest Sosa, “Experience and Intentionality,” *Philosophical Topics* 14 (1986):74.

19) John Heil, “Seeing Is Believing,” p. 232.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는데에 온 신경을 쏟으면서도 보행자가 지나가면 속도를 줄이고, 좌·우회전을 할 때마다 신호를 보내며, 교통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면서 운전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차나 보행자를 피하면서 운전을 할 때 그 차나 보행자를 못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들을 별로 인지하지 않은 채로 운전한다. 하지만 우리가 해치고 나가는 교통의 여러 복잡한 양상을 우리가 고려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운전을 하는 우리의 움직임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知的이고 방향이 정해져 있으며 그 상황에 적절한 움직임인 것이다.<sup>20)</sup>

그러면 이 경우가 바로 우리가 무의식적인 믿음을 갖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까? 논자가 생각하기에는 이 경우는 우리의 무의식적 믿음의 경우라고 말하기보다는 외부 자극에 대한 우리의 무의식적인 반응의 경우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무의식적 반응들이 믿음의 상태를 포함하는 지를 확신할 수 없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적 믿음들이 어떻게 발생하는 지를 알아내지 못하는 한, Heil의 例證이 무의식적 믿음의 존재를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무의식적 믿음이라는 상태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상태가 우리의 일상적인 믿음의 개념과 같은 의미에서의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결국 지각이 판단이나 믿음을 포함하느냐는 문제는 ‘지각’이라는 말을 어떠한 식으로 사용하느냐는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겠다. 지각이라는 말을 약한 의미로 사용하지 말고 강한 의미에서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면, 바꿔 말해서 인식 주체가 대상을 어떠한 것이라고 지각할 때마다 그는 그 대상이 어떠한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믿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면, 앞에서 예로 든 (2)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상을 지각한다고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지각이라는 말을 반드시 강한 의미로만 사용해야 할 뚜렷한 이유는 없음을 앞에서 살펴 보았다. 따라서 지각을 분석함에 있어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제시했던 철수의 지각에 대한 분석의 被分析項은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철수는 그의 앞에 있는 눈물치가 희고 둥글다고 약한 의미에서 지각한다”라고 바꿔써야 하며, 강한 의미에서 지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i)과 (ii)에 덧붙여야 한다.

(iii) 철수는 그의 앞에 있는 눈물치에 대해 “힘”과 “둥글”이라는 인지가능한 속성들을 간접적으로 귀속시킨다.<sup>21)</sup>

이상에서 開陳한 정상적인 지각에 대한 분석을 일반화시켜서 다음과 같은 定義를 제시할 수 있다.

20) Ibid.

21) 철수의 간접적 귀속 행위는 Chisholm이 제시한 간접적 귀속 개념의 定義에 의거해서 설명될 수 있다. Roderick M. Chisholm, *The First Person*, p. 31.

(PL)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킬 때 바로 그 때에만 인식 주체 S는 대상 O가 F하다고 약한 의미에서 지각한다: (i) S의 두뇌에 있는, O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전기 화학적 자극과 O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ii) S는 그 전기 화학적 자극에 강하게 수반하는 O에 관한 지각 내용을 갖는다.

(PS)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킬 때 바로 그 때에만 S는 O가 F하다고 강한 의미에서 지각한다: (i) (PL)의 (i)이 성립한다; 그리고 (ii) (PL)의 (ii)가 성립한다; 그리고 (iii) S는 O에 대해 속성 F를 간접적으로 귀속시킨다.

지금까지 논자는 정상적인 지각의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론 논해 왔다. 그러면 幻覺(hallucination)이나 錯覺(illusion)과 같은 일탈적인 지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먼저 환각에 대해 생각해 보자. Smith가 규정한 바와 같이 환각적 지각이란 인식 주체가 감각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지각 경험이라고 한다면,<sup>22)</sup> 여러 형태의 지각 경험이 환각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술취한 사람이 분홍색 쥐가 달아나는 것을 보는 경우를 비롯해서 心像(mental image)에 대한 지각도 환각적 지각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당신 집에 창문이 몇 개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마음 속에 집을 떠올리고서 창문 수를 세어 본 후 대답하는데 이와 같은 종류의 지각도 일종의 환각적 지각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sup>23)</sup>

환각을 설명하려는 철학적인 시도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이론이 감각 소여(sense-data) 개념을 도입한 현상주의(Phenomenalism)이다. 현상주의에 따르면, 우리의 지각 대상은 실제적이고 가능한 감각 소여의 族(family)이므로 환각의 경우 우리의 지각 대상은 여러 감각 소여의 族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현상주의내에서도 감각 소여 개념에 대한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각 소여에 대해 제기되어 온 여러가지의 비판과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상주의적인 설명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가장 간단한 물음으로, 스무 개의 줄 무늬가 쳐진 호랑이가 내 앞을 쏘살같이 지나갔을 때 그 호랑이에 대한 나의 감각 소여는 스무 개의 줄무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더우기 스무 개의 줄무늬를 가진 호랑이가 지나간 후 스물 한 개의 줄무늬를 가진 호랑이가 지나갔을 때 전자에 대한 감각 소여와 후자에 대한 감각소여가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두 호랑이에 대한 우리의 지각상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두 호랑이를 지각하는 순간에 스무 개의 줄무늬 감각 소여와 스물 한 개의 줄무늬 감각 소여를 갖

22) David W. Smith, "Is This A Dagger I See Before Me?" *Synthese* 54 (1983):97.

23) 인지과학자들은 우리가 이러한 심상을 회전시키기도 한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기도 했다. 심상의 회전을 실험한 Shepard와 Metzler의 실험을 비롯하여 심상의 존재와 성격에 관한 인지과학의 실험 결과는 Stephen M. Kosslyn, *Ghosts in the Mind's Machine*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Sosa는 전통적인 감각 소여 이론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우리의 지각을 “명제 관계 (propositional relation)”의 견지에서 고찰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이 이론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됨을 알 수 있다.<sup>24)</sup> 따라서 감각 소여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서 환각을 설명해야 현상주의가 범한 오류를 피할 수 있는데 논자는 환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자 한다.

(HL)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킬 때 바로 그 때에만 인식 주체 S는 대상 O가 F하다고 환각적으로 지각한다 ; (i) O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기 화학적 자극과 O사이엔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그리고 (ii) S는 전기 화학적 자극에 강하게 수반하는 지각 내용을 갖는다 ; 그리고 (iii) S는 O에 대해 속성 F를 간접적으로 귀속시킨다.

이 定義에 대해서 한 가지 제기될 수 있는 의문점은 빛을 발산하는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전기 화학적 자극을 상정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논자는 Marks의 설명 모델을 따르고자 한다. 그에 의하면, 우리의 감각을 통해 지각된 외부세계에 관한 정보는 시각적 상사형 부호 (visual analog code)나 언어 부호 (verbal code)의 형태로 우리의 기억 저장 체계에 입력되고, 어떤 심상이 의식 체계에서 생기는 것은 그것과 관련된 입력 정보가 기억 체계로부터 인출됨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sup>25)</sup> 따라서 환각의 경우 인식 주체의 두뇌에서 발생하는 전기 화학적 자극은, 관련된 정보를 기억 저장 체계로부터 의식 체계로 인출시키는 신호 (signal)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직선 상태의 막대기를 물에 넣고 보면 굴절되어 보이는 경우와 같은 지각의 특징은, 환각과 달리 대상이 있지만 그것의 실제의 상태와 다르게 지각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곧 그 대상과 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전기 화학적 자극이 대상에 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착각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IL) 인식 주체 S는 대상 O가 F하다고 착각적으로 지각한다 : (i) O에 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S의 두뇌에 있는 전기 화학적 자극과 O사이엔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 ; 그리고 (ii) S는 전기 화학적 자극에 강하게 수반하는 지각 내용을 갖는다 ; 그리고 (iii) S는 O에 대해 F를 간접적으로 귀속시킨다.

24) Ernest Sosa, “Imagery and Imagination—Sensory Images and Fictional Characters,” *Grazer Philosophische Studien* 25/26 (1985-86):485-99; idem, “Experience and Intentionality,” *Philosophical Topics* 14 (1986):67-83. 이에 대한 비판으로서 필자의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Jong-Ho Ha, “On the Propositional Relation Theory,” *Grazer Philosophische Studien* 32 (1988):205-208.

25) David Marks, “Imagery and Consciousness: A Theoretical Review from an Individual Differences Perspective,” *Journal of Mental Imagery* 1 (1977):275-90.

## IV

앞 절에서 논의한 지각에 대한 분석이 갖는 장점과 이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검토해 보자. (PS)의 조건들중의 (iii)은 지각의 특성인 지향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분석이 타당함을 보여 준다. Gibson의 生態學的 知覺 理論을 비판하면서 Fodor와 Pylyshyn은 지각 이론을 포함하는 어떠한 인지 심리학도 지각에 있어서 지향성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바꿔 말해서 세계가 지각되고 있는 지의 여부와 함께 어떻게 그것이 지각되는 지를 인지 이론이 고려하지 않는 한 그 이론은 완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 북극성을 북극성으로서 보는 것은, (a) 그것을 보는 것과 동시에 (b) “-은 북극성이다”라는 열린 문장(open sentence)과 같은 표상을 무엇이 만족시키는 지를 보는 것을 포함한다.<sup>26)</sup> “단순히 봄(just seeing)”에 대비되는 지각 행위인 “-으로서 봄(seeing as)”은 인식 주체가 대상에 대해 일정한 속성을 간접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논자가 제시한 지각에 대한 분석은 Gibson에 대해 제기되었던 비판을 피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조건 (iii)은 지각의 지향적 성격뿐만 아니라 지시적(demonstrative) 성격도 반영한다. Smith는 전통적인 지각 이론들이 지각의 이러한 특성을 무시했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 조건 (iii)으로 인하여 그의 비판은 논자의 분석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sup>27)</sup> 귀속 행위는 대상을 지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PS)의 조건 (i)과 (ii)는 Chisholm이 제시한 지각의 定義에 있는 “어떠어떠하게 느껴짐(being appeared to)”이라는 조건을 대체하는 조건인데 이는 곧 Chisholm이 가장 기본적인 인식 상태로 간주했던 것이 분석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논자의 분석은 그의 이론이 갖는 한계를 극복함과 아울러 Chisholm이 빠져들 수 밖에 없었던 부사화주의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음을 보여 준다. 더우기 위의 분석은 최근들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지 과학의 경험적인 자료들을 받아들여 지각에 대해 일반화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이론적인 장점도 갖는다고 하겠다. 이 장점은 앞 절 末尾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환각과 착각에 대한 분석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된다.

이제 논자의 분석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론들을 검토해 보자. 或者는 정확한 정보 전달자(CIC)와 부정확한 정보 전달자(IIC)를 구분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비판할 지

26) Jerry Fodor and Zenon Pylyshyn, *How Direct Is Visual Perception: Some Reflections on Gibson's "Ecological Approach"* (Cambridge: MIT Center for Cognitive Science, 1980), p. 67.

27) David W. Smith, "Content and Context of Perception," *Synthese* 61 (1984):61-87; idem, "The Ins and Outs of Perception," *Philosophical Studies* 49 (1986):187-211.

도 모르겠다. 정상적인 지각과 일탈적인 지각을 구분하기만 하면, CIC와 IIC의 구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지각의 경우에 있어서 눈뭉치는 그것에 관한 철수의 지각 내용이 발생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PL)의 두 조건들은 “O와 S의 지각 내용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는 하나의 조건으로 대체되어도 무방한 셈이 되고 마는데 이것은 논의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정상적인 지각의 경우에 있어서 지각 대상은 그것에 관한 인식 주체의 지각 내용의 발생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CIC에 관한 조건이 없을 경우, 그 두 사건 사이에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하더라도 인식 주체의 지각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철수의 경우 모종의 대뇌상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의 전기 화학적 자극이 대상의 색깔과 補色인 색깔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고 가정해 보자. 철수가 눈뭉치를 볼 때마다 그의 두뇌에서 일어나는 전기 화학적 자극은 검은 색의 정보를 전달하게 될 것이다. 더우기 그러한 정보를 흰 색에 관한 정보로 언제나 자동적으로 變換시켜서 철수로 하여금 눈뭉치를 흰 것으로 지각하게 하는 정보 간섭자—이를테면, 데카르트의 악령이라든지 신경생리학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경우가 현실적으로는 터무니없어 보일 지 몰라도 형이상학적으로는 가능함을 부인할 수 없는데 이 때에는 눈뭉치가 희다는 사건은 그것에 관한 철수의 지각 내용이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필요 충분 조건이지만 그의 지각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지각의 경우를 규정하기 위해서도 CIC와 IIC의 구분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Dretske가 지적한 지각에 대한 인과 이론이 갖는 문제점을 논자의 분석에 들어 있는 인과성 개념에 대해서 적용함으로써 앞의 분석을 비판하려는 시도가 예상된다.<sup>28)</sup> Dretske에 따르면, 지각에 대한 인과 이론이 갖는 난점들 중의 하나는, 결과가 되는 지각 경험과 인과적으로 관련을 맺는 연속적인 사건들중에서 어느 것이 그 지각 경험의 원인으로 간주되어야 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인과 이론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철수가 현관의 벨이 울리는 소리를 듣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 벨이 울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버튼을 눌러야만 한다. 우리의 청각 경험에 대해 인과적으로 관련을 맺는 대상을 듣는다고 주장하는 인과 이론가들은 현관 벨과 버튼 중 어느 것이 철수의 청각 경험의 대상인 지를 말해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두 대상들이 모두 철수의 청각 경험과 인과적인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찰에 근거해서 논자를 비판하는 입장에 선 사람들은 논자의 분석 역시 이 두 대상들 중 어느 것이 벨이 울리는 소리를 들을 때 철수의 두뇌에 있는 전기 화학적 자극

28) Fred I. Dretske, *Knowledge and the Flow of Information*, p. 156.

과 인과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를 말해 주지 못한다고 반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물음은 비판자가 정보 개념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비록 버튼과 벨이 철수의 청각 경험과 인과적으로 관련을 맺더라도 전기 화학적 자극이 전달하는 정보는 버튼이 눌러지는 사건보다도 벨이 울리는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철수의 청각 경험의 대상은 벨이라고 주장함에 있어서 문제될 것은 없다.

지금까지 논자는 객관적 지칭에 대한 치증의 직접적 귀속 이론에 근거해서 지각을 분석하였으며, 예상되는 비판에 대해서 해결책도 제시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논자가 사용한 ‘정신적 내용’이라든지 ‘정보’ 개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의 이론들에 근거하여 그 개념들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개념들은 앞으로 더 세밀하게 분석되어야 하며, 특히 인지 과학의 발달에 맞추어 철학적인 개념 규정도 보다 정교해져야 하리라 사료된다. 그리고 지각에 관한 이상의 분석은 지각적 지식을 분석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하중호. “지칭 이론으로서의 직접적 귀속 이론.” 「哲學」, 29 (1988 봄) : 209-24.
- Armstrong, D.M. *A Materialist Theory of the Min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8.
- Block, Ned. “Mental Pictures and Cognitive Science.” *Philosophical Review* 92 (1983): 499-541.
- \_\_\_\_\_. “The Photographic Fallacy in the Debate about Mental Imagery.” *Nous* 17 (1983):651-61.
- Casullo, Albert. “Adverbial Theories of Sensing and the Many-Property Problem.” *Philosophical Studies* 44 (1983):143-60.
- \_\_\_\_\_. “A Defense of Sense-Data.”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48 (1987): 45-61.
- Chisholm, Roderick M. *Person and Object*. La Salle: Open Court Publishing Co., 1976.
- \_\_\_\_\_. *The First Person*.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1981.
- Dretske, Fred I. *Seeing and Knowing*.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69.
- \_\_\_\_\_. *Knowledge and the Flow of Information*. Cambridge: MIT Press, 1981.
- Fodor, Jerry A. and Pylyshyn, Zenon W. *How Direct Is Visual Perception: Some Reflections on Gibson's ‘Ecological Approach’*. Cambridge: MIT Center for Cognitive Science, 1980.
- Ha, Jong-Ho. “On the Propositional Relation Theory.” *Grazer Philosophische Studien* 32 (1988):205-8.
- Heil, John. “Seeing Is Believing.”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19 (1982):229-39.
- Jackson, Frank. “On the Adverbial Analysis of Visual Experiences.” *Metaphilosophy* 6 (1975):127-35.
- Kim, Jaegwon. “Concepts of Supervenience.”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45 (1984):153-76.
- Kripke, Saul A. “A Puzzle about Belief.” In *Meaning and Use*, ed. A. Margalit. Dordrecht: D. Reidel Publishing Co., 1979.
- Kosslyn, Stephen M. *Ghosts in the Mind's Machine*. New York: W.W. Norton & Co., 1983.
- Kosslyn, Stephen M., et al. “On the Demystification of Mental Imagery.” In *Imagery*, ed. N. Block. Cambridge: MIT Press, 1981.
- Kosslyn, Stephen M. & Pomerantz, James R. “Imagery, Propositions and the Form of

- Internal Representations.” In *Readings in Philosophy of Psychology*, Vol. 2, ed. N. Block.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81.
- Marks, David. “Imagery and Consciousness: A Theoretical Review from an Individual Differences Perspective.” *Journal of Mental Imagery* 1 (1977):275-90.
- Pappas, George S. “Seeing-e and Seeing-n.” *Mind* 85 (1976):171-88.
- Pitcher, George. *A Theory of Perception*.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71.
- Sellars, Wilfrid. “The Adverbial Theory of the Objects of Sensation.” *Metaphilosophy* 6 (1975):144-60.
- Shepard, Roger N. “The Mental Image.” *American Psychologist* 33 (1978):125-37.
- Smith, David W. “Is This A Dagger I See Before Me?” *Synthese* 54 (1983):95-114.
- . “Content and Context of Perception.” *Synthese* 61 (1984): 61-87.
- . “The Ins and Outs of Perception.” *Philosophical Studies* 49 (1986): 187-211.
- Sosa, Ernest. “Mind-Body Interaction and Supervenient Causation.” In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Vol. IX. ed. P.A. French, et al.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1984.
- . “Imagery and Imagination—Sensory Images and Fictional Characters.” *Grazer Philosophische Studien* 25/26 (1985-86):485-99.
- . “Experience and Intentionality.” *Philosophical Topics* 14 (1986):67-83.
- Tye, Michael. “The Adverbial Theory: A Defence of Sellars against Jackson.” *Metaphilosophy* 6 (1975):136-43.
- . “The Adverbial Approach to Visual Experience.” *Philosophical Review* 93 (1984):195-225.
- Vinci, Thomas. “Sellars and the Adverbial Theory of Sensation.”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11 (1981):199-217.

## ABSTRACT

## A Philosophical Analysis of Perception

Ha, Jong-Ho

As a way of guaranteeing the certainty of our knowledge, many philosophers have delved into the problem of perception. As most of questions about our physiological mechanism of perception have been answered owing to the rapid development of cognitive science, however, the significance of the philosophical inquiry into perception has diminished. My purpose in this paper is to rehabilitate its philosophical significance by showing how to newly analyze our normal and deviant perception on the basis of the experimental data of cognitive science.

Since perception is a kind of objective reference, my analysis of perception is based on Chisholm's theory of objective reference, the direct attribution theory. Although I accept his viewpoint on the problem of objective reference, I disagree with his analysis of perception. Section II shows my discussion on Chisholm's direct attribution theory of objective reference and analysis of perception. In the third section, my new analysis of perception is proposed. Our normal perception is analyzed as follows:

- (PL) A subject, S, perceives in a loose sense an object, O, to be F iff: (i) There holds a causal relation between O and his electrochemical impulses which play a role as a correct information carrier about O in his brain; and (ii) S has the perceptual content about O which strongly supervenes on the electrochemical impulses in his brain.
- (PS) S perceives in a strict sense O to be F iff: (i) (i) of (PL) holds; and (ii) (ii) of (PL) holds; and (iii) S indirectly attributes to O the sensible property F.

In the case of deviant perception, hallucination and illusion can be differentiated from each other and analyzed respectively as follows:

- (HL) S hallucinatorily perceives O to be F iff: (i) There holds no causal relation between O and his electrochemical impulses which carry incorrect information about O in his brain; and (ii) S has the perceptual content which strongly supervenes on the electrochemical impulses in his brain; and (iii) S indirectly attributes to O the sensible property F.
- (IL) S illusionarily perceives O to be F iff: (i) There holds a causal relation between O and

his electrochemical impulses which carry incorrect information about O in his brain; and (ii) S has the perceptual content which strongly supervenes on the electrochemical impulses in his brain; and (iii) S indirectly attributes to O the sensible property F.

In the last section, some theoretical merits of my version of the direct attribution theory of perception and anticipated questions about it are discussed.